

데스크 시각



박 성 천  
편집국 부국장·문화부장

지난 주 발표된 올해 노벨문학상의 주인공은 헝가리 현대문학 거장인 크르스너호르카이 라슬로(71)였다.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르내릴 만큼 서구 문학계에 서는 지명도가 매우 높은 작가다. 2015년 헝가리 작가 최초로 맨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을 수상하는 등 세계적인 문학상의 단골 후보로 거론됐다. 당시 부커상 심사위원들은 라슬로의 문학에 대해 “놀라운 문장들, 믿 기 힘들 정도로 깊이 파고드는 믿기 힘든 길이의 문장 들, 엄숙함에서 광란, 의문, 황폐함으로 어조가 변하며 제멋대로 길을 가는 어조”라고 상찬한 바 있다.

종말론적 공포 속 예술이 주는 힘

라슬로는 1954년 루마니아 국경 인근 헝가리 남동 부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다. 유대인 가정에서 성장한 그는 부다페스트 대학에서 문학을 공부했다. 독일 유학을 거쳐 이후 프랑스를 비롯해 중국, 미국, 일본 등 다양한 국가를 오가며 창작을 했다. 자연스레 그의 작 품에는 헝가리 공산주의 체제의 경험과 독일 유학 이 후 떠났던 창작여행에서 받았던 인상과 영감이 투영돼 있다.

알려진 대로 헝가리는 1949~1989년 1당 체제의 공 산주의 국가였다. 본질적으로 자유를 추구하는 작가에 게 억압의 체제는 강렬한 창작의 기제로 작용했을 것이

헝가리 작가 노벨문학상, 다시 생각하는 ‘광주’

다. 그럼에도 그의 작품 세계는 폐쇄적이거나 경직되 지 않았다. 한림원은 밝힌 노벨문학상 선정 이유는 왜 라슬로가 위대한 작가인지를 보여준다.

한림원은 “종말론적 공포 가운데에서도 예술적 힘을 재확인하는 강렬하며 선구적인 전작(全作)”에 노벨상 을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라슬로는 카프 카에서부터 토마스 베른하르트까지 이르는 중부 유럽 의 위대한 작가로 부조리, 기괴한 과잉이 특질”이라면서 “그럼에도 소설에는 이보다 더 많은 요소가 존재하 며 사색적이고 정교하게 조율된 어조를 구사해 동양을 바라보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사탄탱고’는 오늘의 그를 있게 한 대표 소설이 다.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돼 가던 1980년대 헝가리의 집단농장을 배경으로 절망적인 삶을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의 열망과 불안을 그렸다. 동구 공산권이 해체되 기 이전 불과 수년 전에 창작된 이 작품은 향후 전개될 시대적 징후나 세계사적 변동을 정치하게 형상화했다 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소설은 1994년 동명의 영화 로도 제작돼 문학계와 예술계에 화제가 됐을 뿐 아니라 라슬로는 당시 ‘목시록 문학’의 거장이라는 상찬을 받 았다. 일반적으로 종말을 예감하거나 이면에 숨은 비 밀을 드러내는 유형을 목시록 문학이라고 하는데, 라 슬로는 당대의 어둠을 탁월하게 작품에 담아낸 작가로 각인되었다.

헝가리 출신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 은 아니다. 지난 2002년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임레 케 르테스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부다페스트의 유대인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임레 케르테스는 14세 때 아 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맞닥뜨린 처참 한 현실과 극한의 경험은 후일 세기의 걸작 ‘운명’을 탄 생하기에 이른다. 임레 케르테스는 수용소에서야 아만 의 시간과 그럼에도 아주 잠깐 느끼게 되는 답답한 순

간을 인간의 존재 조건과 결부해 ‘운명’이라는 소설에 녹여냈다.

2002년 당시 한림원은 그에 대해 “아만적이고 제멋 대로인 역사에 맞선 한 개인의 취약한 경험을 지켜내려 한 작가”라고 언급했다. 비인간적인 상황에 내던져져 있음에도 인간에 대한 존엄과 운명을 울림 있는 작품으 로 풀어낸 작가의식, 작가적 책무를 높이 평가했던 것 이다.

2024년 한강 노벨상 감격 떠올라

지난해 이맘때 광주 출신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 상이 발표되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올해 노벨문학상 발표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지난해 한강 작가의 수상 소식 이 오버랩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날 퇴근 중에 한 강 of 노벨상 수상 소식을 듣고 부라부라 차를 돌려 회 사로 복귀하는 동안, 불현듯 그의 소설 ‘소년이 온다’ 가 떠올랐다. 광주의 역사적 상흔과 고통, 슬픔을 시적 인 문체로 그리는 한편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열린 시각으로 담아낸 그 작품은 오래도록 가슴에 남아 있었 다. 언제고 ‘소년이 온다’가 ‘평가받을 날이 온다’는 확 신을 갖고 있었던 터라 한강의 노벨상은 시기상의 문제 이지 미래의 어느 날에 ‘벼락처럼’ 다가올 것으로 짐작 했다.

앞서 언급한 헝가리 작가들과 한강 작가는 국적과 연 령대는 상이하지만 공통점이 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 미려한 문체와 운명에 맞서는 작가적 책무 등이 그렇다. 가족하면서도 아픈 진실이지만 ‘광 주’는 그 모든 것을 내재한, 다시 말해 장소성을 환기하 는 도시다. 나는 그렇게 본다. ‘한강을 키운 건 팔할이 광주’라고. 올해 노벨문학상을 계기로 ‘제2의 한강’이 너무 늦지 않게 출현하길 기대한다.

은펜칼럼



송 민 석  
수필가·전 대학 입학사정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 우리의 전통문화는 날로 그 소중함을 잃어가고 있다. 한때 우리의 일상을 가득 채웠던 전통문화는 이제 그림자처럼 사라져 가고 있다.

농악놀이, 장승, 솟대, 달집태우기, 당산제, 지신밟 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등 세시풍속들이 하나둘 사라 져가고 있다. 과거 조상들이 지켜온 풍속은 삶의 지혜 와 아름다움이 담긴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였다.

10여 년 전 가족 살때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무려 8명 이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부모 부양의식 약화 와 노년층의 소외를 부추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어린 시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전해져온 전 통 놀이도 찾아보기 힘든 세상이다. 집들이나 생일 잔 치가 없어지고, 삼촌과 이모가 사라지면서 가족 모임 이 없다 보니 아파트 입구마다 당장 필요하지 않는 교

사라져 가는 전통문화

자상, 병풍, 밥상이 수북이 버려지고 있다. 전통문화의 사라짐은 우리 문화의 다양성이 그만큼 위협받고 있 다 는 증거다.

친인척의 개념도 점차 사라지고 있다. 당숙은 아버 지의 사촌 형제를 의미하며 촌수는 5촌이라는 것을 아 는 학생이 몇이나 될까? 가정은 부모와 형제로부터 출 발하여 친족으로 확대되고 그 총화가 바로 인류가 아닌 가. 우리 말에 유난히 친족 호칭이 발달해 온 것은 그만 큼 ‘사랑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증거일 것이 다. 삼촌, 이모, 숙모와 같은 정겨운 친족을 일컫는 호 칭이 되살아나는 세상이 그립다.

농경시대에는 책가방은커녕 ‘책보’라는 무명천에 책 을 둘둘 말아 허리나 등에 짚근 동여매고 다니던 시절 이었다. 사람 냄새 물씬 나는 당시에는 울타리 넘어 오 가는 인정 속에 그래도 살만했었다. 형제자매의 결혼 과 출산, 우애를 나누며 오손도손 살아온 우리들이다. 외아들로 태어난 필자의 선친은 8남매를 두어 자손이 60명이 되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삼일장 장례식도 길다고 한다. 제사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는 며느리들의 명절증후군 이 가족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20~30년 후 에는 제사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각종 예의법절을 비롯해 명절과 제사 문화가 사라지면 서 전통 가치관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문화는 과거의 유산을 넘 어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의 전통문화가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영국의 역사 학자 토인비 교수는 서구 사회가 배워야 할 가치로 한 국의 ‘효(孝) 문화’를 꼽았다.

“난 어쩔 수 없이 제사는 지내지만, 자식에게 물려 주 지 않는다”라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사교육 열풍으로 고도의 경쟁 속에 결혼보다는 나 홀로 살다 간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제사를 잘 모셔야 그 집안이 잘된다고 여가던 것은 옛말이 되고 있다.

결혼과 직업도 능력 중심의 고시 사회로 바뀌면서 형 제도 없고 딸 아들 구분이 사라지고 사촌도 멀어지고 있다. 밥할 줄 모르는 명문대 출신 며느리 맞아 설거지 에 아기까지 돌보는 아들이다. 처갓집에 더 신경을 쓰 고 집안 별초나 문중 제사에는 아예 관심조차 없다.

요즘은 디지털 기술력이 생존의 조건이 된 시대다. 식당 입구에서 키오스크 주문을 하지 못해 머뭇거리 고, 기차역이나 버스 터미널에 갈 때도 집에서 예매하 는 젊은이와 달리 어르신들은 번호표를 뽑고 길게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한다. 정보 접근이 제한된 노인들의 사 회적 고립감은 날로 커지고 있다. 핵가족화의 급격한 변화로 소외되는 노인들이 많아지고 장유유서(長幼有 序)의 정신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다.

주민 예술감성 키우는 생활 속 문화도시

기가 너무 아까운 공연이었다. 음악에 문외한이란 필 자도 첫 번째 공연에서부터 완전히 매료되어 마지막 공 연까지 모두 출석도장을 찍은 ‘찐팬’이 될 정도였다.

‘김국주 트리오 밴드’, ‘NS JAZZ BAND’, ‘이광배 밴드’, ‘놀이패 신명’ 등 실력있는 출연진 라인업도 귀 가 솔깃했지만 탱고, 재즈, 록 일터너티브, 마당극, 국 악 등 다양한 레퍼토리 장르는 주민들의 예술적 감성과 문화적 소양을 넓혀주기에 충분하였다.

사실 주최처이면서 동시에 청중이기도 했던 필자는 생소한 사운드와 음악적 무지 탓에 출연하는 뮤지션에 반신반의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했다. 첫 번째 주자로 나선 김국주 트리오 밴드는 이미 KBS ‘볼 후의 명곡’, ‘열린음악회’ 등에 다수 출연한 이력이 있 는 실력과 뮤지션으로, 부에노스 아이레스의 탱고음악 을 반도네온, 베이스, 피아노 등 트리오 하모니로 들려 주었다. 이국적인 탱고 사운드는 관객들로 하여금 마 치 아르헨티나 현지에 온 것과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색다른 매력을 보여주었다.

5·18민주광장에서 진행된 놀이패 신명의 오월마당 국 ‘연젠가 봄날에’ 도 배우들의 눈물과 땀이 서린 혼신 의 연기가 관객들을 5월 그날의 생생한 현장으로 몰아 가는 감동의 서사시였다. 이 공연은 2010년 초연 이후 200회 이상 무대에 오른 스테디셀러 작품으로, 5·18 당시 행방불명된 자식을 둔 남음자의 슬픔을 해학과 유 머로 풀어낸 명품 마당극이었다.

또한 NS JAZZ BAND는 1960년대 쿨재즈부터 스 윙, 모던재즈까지 아우르는 교차적 사운드를 추구하는 뮤지션으로, “이것이 재즈다!”라며 청중들로 하여금 가을밤 감미로운 재즈 선율에 푹 빠져들게 하였다. 이 번 공연에서는 쿨재즈의 재발견을 통해 정적인 스윙 리듬을 선사하며 재즈 팔색조의 매력을 여실히 보여주 었다.

필자는 이런 품격 높은 공연을 공짜로 보고 있자니 티켓 비용을 치루지 않고 보는 미안함과 함께 한편으 로는 생활 속 곳곳에서 자유롭게 고품격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문화적 포만감을 동시에 느끼게 된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예술의전당 무대에 올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준 높은 공연을 그냥 거리에서 무료로 보고 있 자니 내가 문화시민이 된 마냥 감개가 무량했다.

“진짜 문화는 예술관에 있지 않고, 사람들의 삶 속에 있다”라는 영국의 고전인문학자 리처드 리빙스턴 (Richard Livingstone)의 명언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문화도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 곳곳에 서 문화가 생생하게 꽃피어야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다.

광주 동구는 주민들의 일상에서 생활문화의 확산을 통해 삶의 터전 가까이 친근하게 문화가 꽃피도록 생활 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고 있다. 앞으로 주민 생활의 구 석구석에 문화적 향기가 피어나는 동구, 문화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社 說

광주 원스톱 응급의료플랫폼 전국 모델 가능

광주시가 원스톱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 축해 환자들의 일명 ‘뺑뺑이 사고’를 예방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시내 21 개 병원의 응급실을 하나의 병원처럼 관 리하기 위해 원스톱 의료 플랫폼을 만들 어 의료진이 환자 정보를 네트워크로 실 시간 공유해 처치→이송→치료를 한 번에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름하여 ‘광주형 원스톱 응급의료플 랫폼’ 사업이다. 광주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으로 응급환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끝단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지금 까지는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 전화나 팩스로 연락하고 있는데 앞 으로서는 실시간·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해 생명이 위험한 환자의 끝단타임을 확보하 고 전원 요청부터 수락·거절 사유, 영상기 록 등을 남겨 사후 분쟁을 최소화하는 효 과도 기대된다.

전남대·조선대 병원을 비롯해 21개 병 원의 응급병상 345개를 하나의 병원처럼

운영하게 된다. 병원 몇 곳에서 시범운영 중인데 이달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연말까 지 응급지원 전수조사를 마치고 내년부터 는 본격 운영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올 해 사업비 4억원으로 시스템 구축이 가능 한 것을 보면 발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 한가를 알 수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5월 부터 응급의료지원단을 꾸리고 준비를 해 왔는데 이번 사업은 ‘광주형 공공의료 대 전환’ 정책의 성공 모델이 될 것이다.

민선 8기 광주시는 ‘광주형 통합돌봄’ 과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성공을 거뒀다. 민간 의료 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광주형 응급 의료플랫폼도 전국 모델 가능성이 충분 하다. 이번 사업이 필수·중증의료 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성공 모델로 전국화 되 길 기대한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큰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공공성을 강화하는 정 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다.

수도권 집중 부동산대책에 지방은 역풍 우려

정부가 이번 주에 주택시장 안정을 위 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이제명 정부들이 세 번째 대책이지만 수 도권 아파트 가격 안정화에 초점이 맞춰 지다보니 광주·전남 등 지방 부동산은 오 히려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첫 번째인 6·27 대책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줄이는 것이 핵심인 수 요 대책이었고 두 번째인 9·7 대책은 수 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 착공이라는 공급 대책이었다. 이번 주에 나올 세 번째 대책 은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투기과열지 구 등 규제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 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것도 수도권 집중 정책이긴 마찬가지다.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확산될 조짐을 보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때마다 오히려 지방 부동산은 더욱 침체되다보니 지역민 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

리는 현상 탓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제 는 지방 부동산 활성화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 약성인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쌓 이고 건설회사들의 부도 소식이 끊이지 않는데도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된다. 복 합소평물 사업 부진인 전방·일신방직 아 파트 개발사업 시공사들이 참여를 포기한 것도 광주 주택시장 장기 침체와 무관하 지 않다.

6·17 대출규제 대책만 하더라도 일괄적 으로 적용하다보니 지방 실수요자까지 움 츠리게 하는 역효과를 냈다.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만 수도권은 수요를 묶고 지방은 수요를 축 진하는 차별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뫼뫼한 한 채’ 정책을 전국에 똑같이 적용할 것이 아니라 지방에는 1가구 2주 택 정책을 허용해 잠재된 수요를 촉진하 는 유연한 자세가 중요하다. 지방 부동산 침체를 방지하고선 지역 균형발전 정책도 헛구호일 뿐이다.

無 等 鼓

중이(손) 편지가 이메일로 대체된 지 오래인지라 부모나 친지에게 부치는 편지 에 일상적으로 쓰던 누구누구 전상서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던 ‘기체후일향만강하 읍시고’라는 표현을 아는 이가 많지 않 다. 50·60대는 어렴풋이, 70대 이상에게 는 아련한 추억에 젖게 하는 편지글의 관 용구였다. 기체후일향만강은 한자로 ‘氣 體候一向鶴峯’이다. 기력(氣)과 체력(體)의 컨디션(候)이 지금까지 줄곧(一向) 모두 평안(鶴峯)하신지를 여쭙는 내 용이다. 대개 아버지나

기체후일향만강

가 어려워지고 있다. 명절 때면 고향과 가

짜리리를 챙기고(定), 이른 새벽(晨)에 는 잘 주무셨는지를 살핀다(省)는 의미 로 문안과 뜻을 같이한다.

그러나 이 같은 표현을 쓰고 싶어도 그 려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한국전쟁 이후 가족과 생이별한 이산가족이다. 이산가 족은 남북한을 합쳐 1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2023년 기준 남한에 약 30만명 이상이 남아 있으며 대부분 80 세 이상 고령자이다. 상봉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안부 확인도 여의치 않

아 시간이 갈수록 재회 가 어려워지고 있다.

명절 때면 고향과 가 족이 그리워서인지 늘 이산가족의 생사 확인과 서신 교환이 화 켜거리로 오른다. 이제명 대통령도 추석 연휴에 실행민과 그 가족을 만나 이산가 족들이 생사 확인이라도 하고 하다못해 편지라도 주고받을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정치의 책임이라며 북측에도 이런 조치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기체후일향만강하읍시고 식의 문안편지 가 자유롭게 오가고, 직접 만나 안부를 확 인하는 평안의 시대가 오길 고대한다.

/김대성 전남 사·중부 전북 취재부장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                    | 편집국장 崔權一                  | 제작국장 柳濟寬            |
|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                     |
|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                    |                           |                     |
| 편집국안내                                                          | 〈대표 FAX 222-4918〉  | 경 영 지 원 국 220-0515        | 문 화 사 업 국 220-0541  |
|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24     | (FAX 222-8005)            | (FAX 222-0195)      |
| 정 부 220-0634                                                   | 예 향 부 220-0692     | 기 획 관 리 국 227-9600        | 업 무 국 220-0551      |
| 지 부 220-0648                                                   | 여 론 매 체 부 220-0661 | (FAX 222-0195)            | (FAX 222-0195)      |
| 회 부 220-0664                                                   | 사 진 부 220-0693     | 디 자 인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
| 사회 부 220-0680                                                  | 디 지 털 부 220-0697   | (FAX 02-773-9335)         |                     |
|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